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정창권

세계는 지금 이야기 전쟁 중

21세기는 스토리텔링 시대, 곧 이야기 산업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선 좋은 이야기 자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소설로 출판된 후 영화, 게임, 캐릭터, 테마파크, 각종 상품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

소설도 출판된 지 처음 10년 동안 창출했던 부가가치만 해도 300조 원이 넘었다. 이는 당시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인 230조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야기 산업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실감할 수 있는 사례이다.

세계는 지금 이야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영국은 스토리텔링 클럽이나 페스티벌, 학교, 전문 이야기꾼 등 스토리텔링 문화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테일러 목사의 '새도우맨서'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해리포터'와 각축전을 벌이며 15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최근엔 영화화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테일러 목사는 처음 목사로 부임하여 마을을 돌아보던 도중 모든 집들이 역사 가 있으며,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로웠고, 테일러 목사는 흑시나 잊어버릴까 해서 하나씩 적어놓았다.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각색하여 책으로 펴냈다. 이 밖에도 영국은 셰익스피어나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등 좋은 원작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역사가 불과 몇 백 년 밖에 되지 않아서 서부를 개척하던 시대의 카우보이 이야기 같은 것들이 전부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각국의 이야기 자원을 확보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몰란', '쿵푸팬더' 등은 중국의 이야기나 문화 자원을 가져다가 미국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전 세계에 수출한 것이었다.

그와 함께 미국은 스토리텔링을 전문화, 과학화, 산업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 작업의 보조 프로그램인 '드라마티카 프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업의 보조 프로그램인 '스토리 빌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도 역시 만화나 소설 등 원작(이야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만화를 하나의 예술로 보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만화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일본의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원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선 만화가 뜨면 곧바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드라마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나 공모전, 학과 등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지원하여 스토리텔링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제작과 마케팅에만 주력하고, 좋은 이야기의 기획이나 개발에 대한 선 등간시키고 있다. 그래서 최근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막장드라마 논쟁, 여전히 부실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스토리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야기를 마치 자판기의 음료수처럼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딱딱'하고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등 잘못된 사회 인식이 만연해 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 자원을 수입 하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만화, 소설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문헌의 나라요, 이야기 책들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전국 각지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집안들에 소장되어 있는 수많은 고문서뿐 아니라, 정사와 야사, 설화, 민속 등의 이야기집을 한번 생각해봐라. 단지 우리는 그것들을 시대에 맞고 다양한 매체에 적합하게 각색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 곧 한국형 스토리텔링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달리 정(情)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사담과 사담, 사담과 풍물, 사담과 자연, 사람과 사물 등 사이의 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야기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고려대 교양교과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고칼럼



서달원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

간을 나눠 만든 임시숙소에서 3박4일을 지냈는데 날씨는 후텁지근하고 여러모로 불편했을 텐데 이런 일정을 매년 여름마다 27년 동안이나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놀람'의 차원을 넘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팀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첫날은 일기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 아침 미사 때 이런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 정성도 잘 아시지만 소록도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려주시는 것 같다. 바로 어제까지 땀방이 내리쳐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 고생할까 염려하는 어르신들의 마음, 기도할 때 헤어져서 비바람을 통해 바깥에서 땀

흘리며 힘든 일 도와주는 것도 값진 봉사지만 실내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말씀 들어주는 일,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일은 더욱더 값진 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워낙 뛰어난 봉사자들이 팀마다 자리하고 있어서 고르지 못한 일기가 팀들에게는 커다란 장애가 되지는 못했나 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후에 경기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 이야기들이 이미 익숙(?)해지려는 소록도에서의 나의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한 가정에 배정을 받아, 그곳에 가서 방청소도 도와 드리고 이야기 도 같이 나누고 하는데, 공동식사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라면 끓여 달라고 해서 먹고, 손자 같은 아이들 더울까 에어컨 틀어주셨는데 온도가 낮았던지 추워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잠들었다고... 어른들보다도 아무 거리낌없이 친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의도지만 상대방의 입장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앞의 아이들처럼 돕는다는 의식 이전에, 내가 뭔가를 준다는 의식 이전에, 마음과 마음이 가닿아서 우리 사이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직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도 밤 시간으로 들어서면 이불을 끌어당기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강에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흥소록도 성당 주임신부)

기고



김영태

농수산물시장으로 가족나들이 해 보세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 건강의 토대가 되는 신선한 식재료의 중요성을 인식,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이 신선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및 유통종사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첫째·셋째 주 화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정해 도매시장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또 참여하는 직원들 역시 '우리 도매시장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로 생각하고 폭염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 농수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제를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초 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관리사무소를 개소,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지역은행을 방문, 적극적인 설득 끝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유치했으며 전국 어느 도매시장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넓은 주차장을 보유함으로써 쇼핑을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주차장 확보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등 한번 찾는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판매자(중도매인)의 소속 법인과 판매자 이름, 연락처 및 소비자 유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여 소비자의 권익보

호 및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도입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및 일반인의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기회를 제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과 경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고, 시민의 건강을 묵묵히 지키는 도매시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무더위와 폭우로 지친 가족들을 위해 맛과 색깔을 모두 만족시켜줄 건강한 컬러 푸드를 구입하고 행복이 가득한 기분 좋은 미소를 담고 귀가했으면 좋겠다. 가족 모두 워낙 바빠서 한끼 식사도 함께하기 힘든 때 향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화목도 다지게 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구당은 올해 96살이지만 도무지 나이로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진료를 할때도 아침 6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종일 서서 진료를 했다. 그 바쁜 건강 비결은 매일 아침 팔·다리에 뜨는 '보양방'이다. 그는 뜸 시술이 값싸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뜸자리'라는 의미의 '구당(灸堂)'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향토음식 육성 '푸드 투어리즘' 활성화했다면

일본에는 '식려(食旅)'라는 말이 있다. 음식 하나만으로도 여행객이 찾아오고 그 음식 하나가 곧 관광 상품이 된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지바현의 풍토촌은 3년 전 150명의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으로 출발해 지금은 점심에만 600명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풍토촌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유럽에서는 농촌관광과 별개의 개념으로 푸드 투어리즘(음식여행)이 보편화돼 있다. 와인 투어리즘이나 치즈 투어리즘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 농촌 지역에도 이미 치즈 체험, 낙농 체험, 장담그기 체험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다. 전남·북 농촌관광이 성공하려면 불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거리는 기본이고 알릴거리, 놀거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비돼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먹을거리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내려온 향토 음식이 전국 각지에 많다.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촌관광과 연계한다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통의 맛을 이어 갈 수 있는 엄격한 식재료의 사용과 대물림해 온 조리법을 체계화하고, 향토 음식의 앞에 붙는 지역 명칭은 지리표시제제를 통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주 비빔밥, 남원 추어탕, 광양 불고기처럼 지역 명칭이 붙는 향토 음식을 더 육성하고 홍보해서 푸드 투어리즘이 농촌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해본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심거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위기의 우리 사회 'DJ 정신'으로 극복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년이 지났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 가치 발길을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 여러 과제를 남겼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고 노력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민족 화해, 동서화합,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서민복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DJ 정신'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DJ 정신'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되레 경색되고, 지역갈등과 사회분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부(富)의 몰림 현상은 더욱 심해져 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와 불안만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떠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MB 정부가 최근 부

리고 있는 공정사회, 공정 발전도 국민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화해와 협력이다. 이는 정치권과 정부부터 실천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해 이념투구로 날을 지새우고, 정부는 특정 지역·계층 편중 정책으로 일관해선 통합은커녕 갈등과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깊어진 남북 간 골레 경색되고, 지역갈등과 사회분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부(富)의 몰림 현상은 더욱 심해져 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와 불안만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떠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MB 정부가 최근 부

참사 부르는 화물차 불법주차, 뒷집 진 당국

광주의 도심 도로에서 불법 주차차 된 화물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3건에 모두 5명이 같은 사고로 숨졌음에도 광주시와 각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사실상 수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17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 L슈퍼 인근 도로에서 야반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유모(26)씨가 불법 주차차 된 25t 화물차를 추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심야에 대형 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컸던 곳이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김모(4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해 있던 15t 화물차를 들이받아 김씨의 아내와 아들·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1일에도 광산구 도천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5t 크레인 차량을 1t 화물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숨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당국의 안전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지난 3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자 집중 단속을 했지만 사실상 일회성에 그쳤다. 단속기관이 인력 부족 타령만 하며 갓길 불법주차하듯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당국이 계속 뒷집을 지는 한 인재(人災)는 예견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엄한 단속을 펴야 하는 이유다. 불법 주차가 횡행하지 않도록 '삼진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다.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줄 뻔히 알면서도 주차장의 부족 때문에 불법 주차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법 질서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불법 주차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無等鼓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옹은 1915년 광주시 광산구 하남면에서 태어났다. 요즘으로 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으로 하남지구 일대가 갓자리다.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침뜸을 배워 11살 때부터 마을에서 침을 놓았다고 한다.

80년에 가까운 구당선생의 침뜸 인생에는 기적같은 일화가 많지만 유명인과 관련된 것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유명하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 조깅을 하다 다리를 다쳤다. 이런저런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당시 용하기로 소문난 구당을 불렀다. 이때 단 한번의 침으로 고쳤다고 해서 구당이 얻은 별명이 '한번 침'이다.

구당은 올해 96살이지만 도무지 나이로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진료를 할때도 아침 6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종일 서서 진료를 했다. 그 바쁜 건강 비결은 매일 아침 팔·다리에 뜨는 '보양방'이다. 그는 뜸 시술이 값싸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뜸자리'라는 의미의 '구당(灸堂)'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구당이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한다. 서울시로부터 침사(鍼師) 자격정치 처분을 당해 활동을 중단한 후 3년만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은 구당을 뜸 전문가로 초청해 의학과문지도 맡았다. 파격적인 대우다. 자격증이 없다고 출대하는 조국을 떠나 중국행을 택한 것이다.

구당 말고도 또 한명의 스타가 조국을 등졌다. 바로 쇼트트랙의 왕자 안현수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3관왕과 세계선수권 5연패를 달성한 세계 쇼트트랙의 1인자였다. 하지만 파벌 논란에 휩싸였고 대표팀에서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파벌없는 곳에서 운동하고 싶다"며 러시아 국적을 신청했다.

이들이 조국을 등진 이유는 기득권층(이익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정부가 나몰라라한 탓이 크다. 덩샤오핑은 '흑묘백묘(黑猫白猫)'으로 오늘날 중국이 개방경제를 펼쳤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조국 버리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